

토론:

“현대 교육의 고민과 불교의 역할”에 대한 토론

이 계 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I.

주제 발표자는 문명사적 시각에서 볼 때 궁극적으로 인류는 자유를 신장시켜왔고 지식과 기술의 발달로 인류의 숙제인 빈곤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독선과 편견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지만 부정적으로는 르네상스 이래 확대 일로를 걸어온 욕망충족의 역사는 인간성을 황폐화시키고, 도덕성을 타락시켜 인류 문명의 긍정적 의의를 상실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으로 진단하고 있다. 더우기 현대의 지구촌을 크게 지배하고 있는 무한 자유 경쟁적인 시장경제 체제는 집단 이기주의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하여 인류는 이러한 문명사적, 시대사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해 모두가 도덕적 자기 모순에 빠져있는 절망 사태로 보고 있다. 주제 발표자는 이러한 현대 문명의 자기 모순적인 현상을 “현대 문명이 지니는 난맥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난맥상을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현대 문명이 지니는 긍정적인 의의가 상실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즉 현대 문명이 도덕성을 회복하지 아니하고는 현대 문명 자체가 붕괴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가치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의 개방사회에서 인류 문명의 도덕성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전통적인 가치가 무너져 버린 현대에서는 지극히 어려운 일로서 주제 발표자는 그 해결 방법을 다양한 개인의 개성이나 다양한 집단의 독자성의 실현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명사적인 시각과 현대 지구촌을 크게 지배하고 있는 무한 경쟁의 시

장 경제체제 속에서의 현대 교육은 교육의 본질인 삶다운 삶과는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명사적으로 대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기에 서로 다른 교육관과 교육이론들만이 무성할 뿐 현대의 교육계가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현대 교육의 고민이라는 것이다. 삶과의 관련 속에서 보면 교육의 문제는 “세계관의 문제”로서 진정한 인간 교육이란 사실적 지식이나 지식탐구 방법에 대한 지식을 넘어 이해와 의미 속에 내재하는 가치를 삶속에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교육으로서 佛家의 세계관은 이에 지대한 공헌을 하리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객관적 지식의 차원을 넘어 있는 체험적 지식으로서의 불가의 지혜론이 그러하고, 연기의 세계관이 그러하며, 연기의 세계관에 기반을 두고 있는 불가의 사고방식, 즉 중도의 논리학이 그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명사적 시각에서 대전환의 위기를 맞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교육이 어떤 교육의 이론과 방법으로 현대인이 당면하고 있는 교육의 문제, 즉 인간성을 기르고, 도덕성을 회복시켜야 할지를 모르고 당황하고 있는 이 때에 불가의 세계관, 즉 연기의 세계관과 중도의 논리학과 지혜론 및 불가의 인격수행의 방법 등등은 크게 도움이 되리라는 견해이다. 그러므로 인격교육론의 보고인 전통적인 종교교육론을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주제 발표 논문의 내용이 토론자가 이해하기에 어려울 만큼 깊이 있는 내용이어서 몇 번을 읽어도 산뜻하게 파악할 수가 없었다. 토론자가 불가의 교육론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탓으로 여긴다. 그러나 책임상 토론자가 주제 발표 내용을 이해한 위와 같은 수준에서 이 주제발표에 대한 소감과 토론자로서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II.

주제 발표자의 현대문화에 대한 문명사적 시각과 관점에서 현대문화의 문화적인 난맥상과 현대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고, 불가의 연기론적 세계관과 지혜론, 그리고 중도의 논리학이 인간성을 기르고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주제발표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불가의 세계관이 구체적으로 현대교육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좀 더 소상하게 밝혀 주었으면 하는 욕심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로 불가의 수양방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혜에 관련한 문제인데 토론자가 이

해하기로는 알지 자 知慧와 지혜로울 지자 智慧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하여 논하는 것이 초심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지혜로울 지자의 智慧와 마하반야, 般若智와는 어떠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지를 깨달음과 관련하여 제시했더라면 하는 생각이다. 주제발표 논문에 의하면 객관적인 知識과 체험적 지식으로서의 智慧(앎)를 구분하여 논하고 있는데 동의는 가지만 산뜻한 이해는 되지 않는다. 초심자의 불경을 이해하고 있는 수준의 토론자이지만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知慧와 불가에서 말하는 智慧 즉, 般若智, 특히 마하반야와는 크게 차이가 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知識과 智慧의 개념도 더욱 분명하게 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불가에서 말하는 반야지인 탁월한 지혜(마하반야)는 “깨달음” 뒤에 획득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주제 발표자의 의견은 어떠한가?

둘째로는 불가의 수양방법이 “자기자신에 대한 존재론적 성찰”(자아성찰)이라 명명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참으로 인간성을 기르고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크게 공헌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禪宗의 문답법은 불교교육 방법론의 금자탑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 교육방법은 현대적으로 변안하여 인간교육 방법론에 원용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 자기자신에 대한 존재론적 성찰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셋째로 연기의 세계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도의 논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 즉 형식논리와 전적으로 상이한 논리방식이라는데 동감을 하면서 토론자로서는 중도논리에 대한 더 깊은 의미와 가치를 두고 있는 바, 중도의 논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식논리와 병렬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논리방식 내지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있는 논리방식으로서 쟁 빼아제의 형식논리 이후의 단계로 짐작되는데 주제 발표자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다.

불가의 중도논리만이 아니라 도가의 논리방식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며, 주역의 논리방식도 동일한 차원의 논리방식이요, 사고방식이 아닌지? 이처럼 인류의 최고의 논리방식 내지 사고방식이 중도논리와 같은 보편성을 지닌다고 하면 불가에서 말하는 중도논리는 형식적 조작단계를 넘어 있는 이른바 “초형식논리,” “탈형식논리,” “메타논리”라는 견해는 수긍할 만한 것인지 묻고 싶다. 왜냐하면 주제 발표자는 자아성찰의 탐구과정 자체가 인격의 변화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론자가 보기에 그 그러한 맥락에서 중도논리를 파악하고 있는 바, 지극히 간단하게 표현하면 자아탐구의 과정을 거쳐 깨달음을 획득함과 동시에 인지구조(인격의 구조)가 변화를 일으키고, 인격의 구조변화가 바로 사고방식 내지는 논리방식의 변화라고 본다면 자

아성찰의 탐구과정을 통해서 획득하게 되는 깨달음 이후의 인격의 변화는 곧 사고방식 내지 논리방식은 탈형식논리 단계, 초형식논리 단계, 메타논리 단계라 하겠고, 그것이 바로 불가의 “중도논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

토론자는 위의 견해에 대한 주제 발표자의 해명이 주제발표 논문을 더욱 심도있게 만들고, 이해의 폭을 넓혀 주리라는 확신에서, 또한 토론자로서도 확인해 보고 싶은 욕망에서 토론을 전개하였다.

III.

토론자의 이상의 질문에 관계 없이 인격교육을 공부하면서 祭/政/敎는 현대에 있어서도 불리할래야 불리할 수 없는 관련을 맺고 있다는 생각이 더해 간다. 차제에 인격교육과 관련하여 한국종교교육학회가 탄생하고 있다는 것이 토론자 개인으로서는 환영하는 바이며, 불가의 세계관 내지 불가의 교육론이 인간성을 기르고 도덕성을 회복하는 데에 크게 공헌하리라는 주제 발표자의 확신에 동감하면서 주제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주제 넘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앞으로 이 학회에서 이러한 의문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이 토론자도 바라고 있는 바이다.